

# 여성의 목소리로 쓴 인도 근현대사

제럴딘 포브스 지음, 구하원 옮김, 『근현대 인도의 여성』(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을 읽고

신민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근현대 인도의 여성』의 국내 출간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작년 가을 무렵 이 책을 번역한 구하원 교수의 SNS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였다. 그 사진은 연보랏빛 사리(sari)를 입은 한 인도 여성이 오른손에 붓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책을 받치고 앉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책 표지 그림을 찍은 것이었다. 그 그림은 1938년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의 작은 마을 하리뿌라에서 개최된 인도국민회의 연차 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마하뜨마 간디가 벵골 출신 화가이자 샐띠니께탄(Shantiniketan)의 미술학교 교장이었던 난달랄 보세(Nandalal Bose)에게 직접 요청하여 제작한 포스터 80여 점 중 하나에 담긴 그림으로, 당시 간디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인도 농촌 발전 운동과 그 핵심 이념, 그리고 농촌 생활의 본질에 대해 일반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그려 달라고 보세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필자에게 이 책의 출간 소식이 무척이나 반갑게 느껴졌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인도여자에게 마침표는 없다: 인도 여성, 작은 희망의 이야기』(사과나무, 1998), 『인도여성: 신화와 현실』(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5), 『인도, 아름다움은 신과 같아: 인도 여성의 미, 어제와 오늘』(서해문집, 2014) 이후 아주 오랜만에 ‘인도 여성’을 주제로 한 ‘대중 학술서’가 나왔다는 점이다. 물론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인도 여성’, ‘인도와 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지만(구하원, 2018; 신민하, 2022), 일반인들이 일일이 찾아서 읽기는 어려울뿐더러 인도 역사 전반에 대한 일정 정도의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근현대 인도의 여성』은 인도가 영국의 식민통치하에 있었던 19세기부터 독립 이후 1990년대 초입에 이르는 시기까지 인도 여성들의 억압받는 삶과 이를 바꿔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의 궤적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인도 여성사의 연속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훌륭한 참고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됐던 인물과 사건을 풍부하게 다루고 있어 일반 독자들도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들이 많아 보인다.

이 책의 국내 출간이 반가웠던 또 다른 이유는 1996년 출간 이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학부 및 석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인도 여성사/여성학, 인도 근현대사 관련 수업의 필독서 목록에서 여전히 이 책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 근현대사’ 자체는 크게 새로울 게 없지만 그 중심에 ‘인도 여성’을 두고 있다는 ‘참신함’이 여전히 그 기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금부터 『근현대 인도의 여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 II. 저자와 번역자로 만난 미국과 한국의 두 여성 인도 학자

『근현대 인도의 여성』의 원제는 *Women in Modern India*로 1996년 케임브리지대학교출판부의 ‘뉴 케임브리지 인도사’ 시리즈 중 한 편으로 출간되었다. 이 시리즈의 전신인 ‘케임브리지 인도사’ 시리즈가 처음 출간됐던 시기(1922-1937년)는 편집자 중 그 누구도 인도 여성을 역사적 주체로 생각하지 않던 시대였지만, 1991년 7월 인도 정부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경제개혁 이후 인도에서 여성들이 이뤄낸 역사적 성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되면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인도 여성사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던 페미니스트 역사학자 제랄딘 포브스(Geraldine Forbes) 교수가 새로운 시리즈에 인도 여

성사를 주제로 하는 책의 집필자로 참여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인도사를 연구하던 학자들과 공부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제럴드 포브스 교수는 1970년대 이후 인도 여성사 연구를 진일보시킨 선구자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의 약력이 이 책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생각되어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캐나다에서 출생한 포브스 교수는 1965년 앨버타대학교에서 학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으로 건너가 1972년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1년 뉴욕주립대학교 오스웨고(Oswego)의 역사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이래 현재는 같은 대학 역사학과와 여성-젠더학 과정 소속 명예교수직을 맡아 인도 여성사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여전히 이어 가고 있다. 한 예로, 포브스 교수의 최근 활동 소식은 인도의 유력 영자 일간지 *The Statesman*의 2024년 3월 11일자 온라인판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포브스 교수는 인도 여성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단상들과 함께 2021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잃어버린 편지들과 페미니스트 역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포브스 교수가 발표한 연구 성과물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녀가 인도 여성사 연구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진다. 4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편집자로 참여한 것을 포함해 저서가 총 14권, 학술지 및 학술서를 통해 발표한 논문이 총 37편, 전문 사전(Encyclopedia)에 발표한 글이 총 6편인데, 거의 대다수가 인도 및 남아시아 지역의 여성을 주제로 하고 있다. 특히 1976년 출간된 그녀의 첫 저서 『벵골의 실증주의』는 1979년 웨스트벵골 정부가 벵골 문화를 널리 알린 최고의 도서에 수여하는 상(賞)인 라빈드라 뿌라쓰카르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포브스 교수는 교직에 있는 동안 인도 여성사와 관련된 수많은 강좌를 직접 개설하고 강의했으며, 여성사 연구와 관련된 여러 학회 및 단체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인도 여성사 연구의 외연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근현대 인도의 여성』이 번역서라는 점에서 원저가 담고 있는 내용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담아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다행스럽게도 번역을 맡은 이가 인도 근대미술사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인도 여성사와 관련된 유의미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인도학자다.

이 책을 번역한 구하원 교수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19세기 자이나교 성지(聖地)에서 일어난 변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조교수를 거쳐 2015년부터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인도 전공 주임을 맡고 있으며, 인도와 남아시아 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구하원 교수는 「역자 후기」에서 “식민통치하 인도 여성의 건축과 회화 후원을 연구하면서 인도의 여성사와 여성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국내에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을 깨닫고”(406쪽)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여성학과 여성운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년간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에서 진행하는 팀티칭 <여성학핵심연구>를 청강하면서 교수 및 대학원생들과 번역문 초고를 같이 읽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원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여정이 꽤나 길었으며, 그 시간 동안 번역자의 인도 여성사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에도 커다란 발전적 변화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 III. 인도 여성들의 힘겨운 주체성 찾기의 역사:

####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저자는 서문에서 인도에서 가부장제가 여성의 행동을 어떻게 제약해 왔는지를 인식하는 동시에 근현대 인도 역사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이를 복원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집필 목표로 밝히고 있다. 이는 기존 인도 여성사 연구들이 ‘여성을 높이 평가했던 고대 인도의 황금기 — 오랜 기간의 정체와 쇠퇴 — 영국이 도입한 근대성(modernity)을 향한 느리고 점진적인 행진’이라는 선형적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19세기 초반부터 독립 이후 1990년대 초입까지의 시기를 총 8개 장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으며, 각 장이 담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19세기의 개혁”은 19세기 초 인도 여성의 낮은 지위와 그에 따른 불

이익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던 힌두 남성 개혁가 램 모훈 로이(Rammohun Roy, 1772~1833)의 사상과 활동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 시기 인도 여성들은 남성 개혁가들에게 조혼, 여아 살해, 과도한 지참금, 과부 재혼 금지, 사띠(sati), 일부다처제 등과 같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상황에 대해 호소해야 할 의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인도 여성들은 비판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되 이를 표현할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기에 남성 개혁가들의 보조자 역할을 자처하며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공적 행위에 참여하는 소위 ‘신여성’으로 불리는 여성들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저자는 당시 인도의 남성 개혁가들이 여성의 지위 향상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진보’를 목표로 하였으나 그것은 영령 인도의 식민 지배자들이 통치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내세우고 있던 ‘문명화의 사명’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 여성교육”에서는 19세기의 개혁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진보와 근대화 의제를 연결하는 메커니즘으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 다양한 교육 기관의 설립과 주요 관련 인물을 다루고 있다. 당시 힌두 남성 개혁가들이 주도하던 사회단체인 브라호모 사마즈, 아리야 사마즈뿐만 아니라 뻘디따 라마바이 사라스와띠(Pandita Ramabai Saraswati, 1858~1922), 마따지 마하라니 따빠스위니(Mataji Maharani Tapaswini, 1835~미상) 등과 같은 교육받은 여성들은 억압받는 인도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여학교 설립을 시도했다. 또 다른 교육받은 여성들은 과부들을 위한 기숙학교, 무슬림 여성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을 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했다. 교육 받은 인도 여성들이 스스로가 교육가가 되면서 자신들의 종속적인 지위와 그로 인한 한계를 깨달았던 점은 이 시대 인도 여성 운동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시기 여성 교육은 ‘진보된 사회’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인도 여성을 남성과 가부장적 사회에 더욱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한 측면도 강했기 때문에 인도 여성들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은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인도 여성 교육에 무심했던 영국 식민정부가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아내에 대한 교육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배경에는 영국의 통치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는다.

“제3장 여성단체의 등장”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사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다양한 여성단체의 설립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다루고 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 여성들이 인도 여성을 위해’ 설립한 여성 인도협회(Women’s India Association), 인도전국여성위원회(National Council of Women in India), 전인도여성협의회(All-India Women’s Conference)가 어떻게 미래의 정치활동을 위한 훈련의 장(場)이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와 같은 단체들은 당시 인도 여성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악습을 타파하는 데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 민족주의 운동 과정에서 여성의 단결을 끌어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물론 당시 여성단체들은 모든 계층의 인도 여성들을 대변하는 데 있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시기 등장한 여성단체들이 “남성의 동반자이자 조력자, 이상적인 어머니, 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신여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인도의 “독특한 맥락” 속에서 “정치 또는 사회 기관에서 지도자 임무를 수행할 여성을 양성”했고, “해당 기관들은 인도라는 국가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94-95쪽)고 역설한다.

“제4장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에서는 영국 식민통치하에서 인도 여성들이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제 여성단체들은 자신들이 인도의 모든 여성을 대변한다는 더욱 과감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으나 식민통치하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영국인 지배자들은 농촌에서 격리되어 살아가는 교육 받지 못한 ‘가난한 여성’이 새로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상류층 출신 여성들이 주도하는 여성단체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한편 간디를 비롯한 민족주의 운동 지도자들의 경우 인도의 독립이 최우선 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인도 여성들이 가부장제의 폐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단체들은 사회적·문화적으로 예민한 문제들을 건드리지 않고도 가능했던 여성 참정권, 시민권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면서 주요 활동 방법으로 ‘청원 정치’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제 교육받은 인도 여성들과 그들이 주도하는 여성단체들은 인도 여성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서 탄원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의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한 조각의 정의를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또한 무엇이든 받아들여야”(167쪽)만 한다는 현실적 교훈을 얻었다.

“제5장 민족주의 운동의 여성”에서는 1905년 벵골분할령부터 1934년에 막을 내린 시민불복종운동에 이르기까지 벵골, 구자라트, 봄베이, 마드라스, 북인도 지역에서 진행된 민족주의 운동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여성들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았으나 민족주의 운동에 여성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인도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진영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171쪽). 또한 저자는 무장 경찰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는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사त्या그라하(satyagraha) 운동에 참여한 인도 여성들이 영국 지배자들로부터 ‘도덕적 권위’를 빼앗아 이를 비폭력적인 인도인 피지배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평가한다(217쪽). 당시 여성 지도자들은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을 정치활동에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의 남편이나 아버지의 허락을 구해야만 했고, 지역에 따라서는 인도 국민회의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만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여성들이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하면서 “인도 통치에 여성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217쪽)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여성과 관련된 각종 법안에 대한 남성 지도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끌어냈다는 점이다.

“제6장 식민 치하 인도의 여성노동”은 자료의 희박함으로 인해 대다수 인도 근현대사 연구자들이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19~20세기 기간 중 영국의 식민 지배가 인도 여성의 노동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식민지 시대에는 전통산업이 붕괴되고 산업 분야의 식민지 근대화로 인해 남성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숙련 노동을 담당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장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식민지 시기 여성노동’을 주제로 다루면서 앞서 설명한 교육 받은 여성들이 주도한 활동에서 제외되었던 공장, 광산 등지에서 일했던 하층 여성 노동자와 당시 도시를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난 직종인 하녀와 매춘부의 ‘착취당하는’ 삶까지 탐구하기 위한 잠재적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 장을 “인도 여성에게 고용이란 동등한 교육 기회, 급여를 제공하는 조치가 아니라 여전히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일 뿐이라는 인식이 지속되었다”(264쪽)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후속 연구가 가장 기대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제7장 변화의 시대”는 1940년대 초반까지 도시를 기반으로 전국 단위의 활

동을 했던 여성단체들이 쇠퇴하게 되는 정치적 배경과 독립을 목전에 두고 진행된 인도철폐운동(Quit India Movement), 인도국민군(Indian National Army) 활동,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위한 다양한 운동에서 인도 여성의 변화된 시선과 활동을 다루고 있다. 이때까지 식민 지배와 민족주의적 열망이라는 상반된 힘 사이에서 힘겹게 균형을 잡으며 성장해 온 여성단체들은 1940년대에 접어들어 사실상 자신들이 모든 인도 여성을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다수의 경쟁적인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이상과 그에 걸맞은 실용주의적 태도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271쪽).

이 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저자가 1937년 지방선거에서 인도국민회의가 우파적 노선으로 방향을 틀면서 시민불복종운동 기간 인도국민회의 지도자들이 내걸었던 여성단체들과의 협조 약속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고 분석한 지점이다. 선거운동의 재원을 마련하고 강력한 집단과 연줄을 맺어야 하는 현실 정치의 높은 벽에 부딪히면서 ‘특혜 없는 공평한 장(場)’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는 한낱 이상주의적 태도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청원 정치에 익숙했던 여성과 단체들은 선거 정치에 적응하지 못했고 청원자의 역할에만 집중했다. 그 결과 “[인도] 민족주의 정치는 [인도를 여성으로 표상화하면서] 여성화되었으나 선거 정치는 여전히 남성들이 지배”(277쪽)하는 상황으로 더욱 공고화되었다.

한편 힌두와 무슬림 사이에 종교공동체주의(communalism)에 기반한 갈등까지 격화되면서 세속적 힌두민족주의를 기본 목표로 상정하고 있던 대다수 여성단체들은 무슬림 여성들과도 일체를 이루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들은 현상 유지에 머무르지 않았다. 저자는 1940년대 접어들어 인도 여성운동이 인도철폐운동을 비롯한 다른 주요 활동으로 인해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일부 여성들이 이전과 비교해 훨씬 더 급진적이고 혁명적으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위한 활동을 이어 가면서 여성운동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304쪽)고 주장한다.

“제8장 독립 인도의 여성”은 독립 이후 인도 여성의 지위, 여성의 정치적 역할, 현대 경제와 여성의 관계, 현대의 여성운동을 다루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도 유일의 여성 총리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1917~1984)의 정



치활동, 낙살바리(Naxalbari) 운동과 여성, 현대 여성을 위한 대중잡지 『페미나(Femina)』와 젠더화된 폭력에 대한 폭로를 주로 다루었던 여성주의 저널 『마누쉬(Manushi)』의 창간과 역할, 성비 불균형, 여아 낙태, 현대 인도의 지참금 살인과 사피, 극우 힌두민족주의 정당인 인도국민당(BJP)의 등장과 여성의 관계 등 실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볼 때 이 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앞장과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어쩌면 이는 온전히 혼자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산적하게 된 ‘독립 이후의 인도’는 ‘독립 이전의 인도’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음을 반영하는 대목으로 생각된다.

이 장에서 필자가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1974년 인도 중앙정부가 여성의 지위에 대한 보고서 『평등을 향하여』를 발간했을 당시 상황을 다루고 있는 대목이다. 이 보고서는 유엔이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여성 지위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면서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독립 인도의 각종 정책 지침과 규정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인도 여성들이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와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독립 이전과 비교해 더욱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여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323-324쪽). 그러나 이 보고서의 발표를 계기로 인도 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인도 여성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사실이다. 실제 많은 인도 여성사 연구자들은 이때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된 인도 여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현대 인도의 페미니즘 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본다(Patel, 2023: 23).

이 책의 구성에 있어 원저와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원저의 말미에 28페이지 분량으로 실려 있던 이 책에 사용된 자료들을 입수한 경로를 설명하는 “참고문헌에 대한 에세이”는 저자와의 동의하에 빠졌다.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38쪽 분량의 미주와 ‘사반세기가 지난 후’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10쪽 분량의 “역자 후기”다. 미주의 경우 원저의 “참고문헌에 대한 에세이”에 언급된 모든 1차, 2차 자료들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기에 개별 여성의 역사를 더 넓은 역사적 틀에서 연구하고픈 연구자들에게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번역자는 “역자 후기”에 원서가 출간된 1996년 이후부터 번역서가 출간된 2023년 10월까지 인도 여성운동에 나타난 변화의 큰 줄

기와 더불어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 수행된 인도 여성 관련 연구에 대한 짧은 회고까지 담았다. 이 책이 더욱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지닌 인도 여성사 연구물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인 대목이라는 점에서 무척이나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 IV. 『근현대 인도의 여성』에 대해 조금 더 말하고 싶은 이야기

저자는 인도 여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19세기 식민통치 시기부터 독립 이후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인도 여성의 포괄적인 역사를 검토했다. 무엇보다 가부장제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도 여성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하여” 저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미국, 영국, 인도에서 발굴해 낸 “개인 기록이나 문서, 일기, 잡지, 문학작품, 자서전, 편지, 사진, 팸플릿”(6-7쪽) 등을 바탕으로 촘촘하게 엮어서 쓴 이 책은 인도 여성사 연구에 여전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인도 근현대사 개론서들은 간디가 등장하기 이전 시기 여성의 역사는 거의 다루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1980년대 초 등장한 이후 억압받는 민중들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역사로 복원하고자 했던 서벌턴(Subaltern) 학파 또한 여성의 ‘서브얼터니티(Subalternity)’를 제대로 다룬 연구물을 생산해 내지는 못했다.

물론 인도 여성들의 목소리로 근현대사를 쓰는 과정에서 한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류층 출신의 엘리트 여성들이 글로 써서 남긴 자료에 크게 의존하면서 책 대부분의 내용에 상류층 엘리트 여성들과 그들이 주도한 여성단체들의 특수하고도 제한적인 시선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여성들과 사회적·경제적 차원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삶을 살았던 다른 계층 여성들의 목소리는 소외된 측면이 강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인도학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아쉽기만 한 대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책이 지닌 또 다른 미덕은 저자가 서술에 있어 냉철한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페미니즘에 대한 공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12쪽), 근

현대 인도 역사에서 등장했던 특정 정치적 의제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필자는 이 책을 읽고 난 후 저자가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의제 사이의 결합을 의식적으로 조심하면서 과거 인도 여성들이 직면했던 근대성 담론이 지닌 모순과 양면성을 모두 포함한 서술 방식을 견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 책에 등장한 인도 여성들이 자기 운명의 주체였음을 지나치게 강조하지도, 그렇다고 인도 가부장제와 영국의 식민통치를 극렬하게 비판하지도 않은 것 같은 다소 모호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살아간 여성들의 진취적인 삶과 정치적 참여 과정을 그들이 처했던 현실적 제약 및 난관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서술한 것은 오히려 인도 여성들이 2세기 가까이 걸어온 험겨운 여정에 대한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긴 여운을 남기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인도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독립 이전 시기를 다루고 있는 7개의 장은 영령 인도(British India) 시기에 한 몸이었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근현대사와 여성사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도 흥미롭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의 여성사 연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폭넓은 주제와 인물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들을 충실하게 확보하고 분석한다면 향후 또 다른 참신한 연구로 이어질 확장의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 V. 나가는 말: 인도 여성의 밝은 미래를 상상해 보며

저자는 책의 말미에 종교공동체주의의 부활과 무슬림에 대한 학살, 힌두 극우주의의 성장, 뺨잡의 분리주의 운동을 이유로 들면서 “인도의 여성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믿음일 것”(358쪽)이라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중국에는 여성의 교육과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정치적 지형이 충분히 바뀐 인도에서 “여성들은 더 이상 법률 집행 대상이 아니라 법률 제정의 주체”가 되었으며 “많은 여성이 더 이상 가족에 의해 운명이 좌지우지되

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했고 이를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을 것이다(359쪽)”라고 끝을 맺었다. 2000년대 중반 인도 뉴델리로 건너가 8년간의 유학 생활 마치고 2010년대 초반 한국으로 돌아온 필자는 저자의 마지막 문장이 현실에서 구체화하기 시작한 초반의 인도를 직접 보고 경험한 적이 있기에 좀 더 밝은 미래를 상상해 보고자 한다.

먼저 1991년 경제개혁을 계기로 신자유주의가 인도에 상륙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류 최초로 가부장제의 근간을 뒤흔든 신자유주의는 인도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사회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불러왔으며, 무엇보다 인도 여성의 자유, 평등, 시민권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변화의 노력을 동반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대하는 인도 내 사회적 분위기 또한 크게 변했다. 특히 2012년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발생한 여대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인도 전국을 뒤덮었던 촛불시위의 물결은 여성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 2014년 4월 치러진 인도 총선에서 출사표를 던진 정당들이 내건 주요 공약의 대부분은 여성 인권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 불행한 사건이 불러온 사회적 변화의 바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5년 12월 인도 정부는 성폭행,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처벌 연령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췄다. 수년간 진행된 이 사건의 재판은 2020년 3월 20일 범인 네 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면서 종결되었다(BBC, 2020). 이는 인도에서 여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최근 인도의 정치권에서 찾을 수 있다. 『근현대 인도의 여성』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성과 단체들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 없이 시도했던 노력 중 하나는 정치적 권리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독립 이후 총리, 대통령, 주총리 등을 지낸 고위직 여성 정치인들이 여럿 배출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인도의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책이 출간된 1996년부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인도 하원이 여성에게 의회의 의석 할당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후 27년간 통과되지 못했던 이 개정안은 2023년 9월 거의 만장

일치로 인도 상하원을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의석의 3분의 1을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지난 10년간 집권한 인도국민당의 열혈 지지층으로 자리 잡은 여성 유권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개정안의 실질적 적용이 2026년 인구조사 후 선거구 조정을 거친 뒤 이르면 2029년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024년 총선을 위한 공치사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India Today*, 2023: 28-39).

이 개정안과 관련해 필자가 주목하는 지점은 여성할당제 헌법 개정안이 성평등 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도 많다는 점이다. 여성 정치인들이 많아지면 성평등, 육아, 안전, 건강 등과 관련된 이슈를 다룰 가능성과 여성으로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낙관적인 시선을 뒷받침하는 것은 인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성 인구 수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을 기점으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약 14억 3,000만 명)으로 등극한 인도의 여성 인구는 6억 9,170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48.4%를 차지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지난 2019년 총선을 기점으로 선거에 참여한 여성 유권자의 비율이 남성의 그것을 근소한 차이(67.2: 67)로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물론 선거에 참여한 여성들이 남편과 자식들의 조언에 따라 투표하는 예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또한 의회에서 활동하는 여성의원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성평등과 여성 인권의 신장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현대 인도의 여성』에 등장했던 인도 여성들의 수많은 좌절과 실패의 사례들을 떠올려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진일보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 지금부터 필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인도에서 여성운동은 더욱 대중화될 것이며, 곧 여성들의 시간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인도를 바라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며 먼 여정을 거쳐서 한국까지 도착한 『근현대 인도의 여성』이 많은 독자에게 더없이 유익한 보탬이 되길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구하원. 2018. “새로운 사료와 시각을 도입한 심층 연구의 확산: 2014~2017 인도사 연구 동향.” 『역사학보』 239, 379-395.
- 김주희·김우조·류경희. 2005. 『인도 여성: 신화와 현실』.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신민하. 2022. “인도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연구 영역의 안과 밖, 2018~2021년.” 『역사학보』 255, 379-395.
- 이옥순. 1998. 『인도 여자에게 마침표는 없다: 인도 여성, 작은 희망의 이야기』. 사과나무.
- \_\_\_\_\_. 2014. 『인도, 아름다움은 신과 같아: 인도 여성의 미, 어제와 오늘』. 서해문집.
- BBC. 2020. “Nirbhaya Case: Four Indian Men Executed for 2012 Delhi Bus Rape and Murder.”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51969961>(검색일: 2024. 7. 17.).
- India Today*, October 2, 2023. (Printed copy)
- Patel, Vibhuti. 2023. “Journey of Women’s Studies in India (1974-2023).” *Synergy* 19(1).
- The Statesman*. 2024. “I Would Like to See International Women’s Day Maintained as a Day That Honours Working Women: Geraldine Forbes.” <https://www.thestatesman.com/supplements/miscellany/i-would-like-to-see-international-womens-day-maintained-as-a-day-that-honours-working-women-geraldine-forbes-1503278233.html>(검색일: 2024. 7. 17.).
- World Bank Group, <https://www.worldbank.org/en/home>(검색일: 2024. 7. 19.).